

정선풍류 旌善風流

출연진



김혜인



김민석



홍동주



함미경



남나경



최유진



오현지



김진각



장석배



최진실



강완규



이분자



윤동중



박정미



정하나



김정숙



신순자



이슬



장진엽



변의열



변혜량



김선미



박선영



윤종호



전제선



연출감독 김용하

안무
이주원

조명디자인
이경천

영상디자인
문혜진

음향디자인
박영진

조명감독
김봉준

무대감독
김규태

음향감독
김동철

단무장
전용우

행정지원 문화공간팀
장재덕, 이유나

정선아리랑 토요상설공연
2022. 5. 14. Sat — 11. 26. Sat 아리랑센터
오후 2시, 무료공연

정선풍류(旌善風流)

삶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깃들다.

연출 : 김용하

출연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정선풍류’는 2021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첫 번째 가.무.악 일체의 레퍼토리로써 아리랑의 본류인 ‘정선 아리랑’을 중심으로 삶의 소리였던 토속민요들을 재구성하여 만든 작품이다.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의 생성으로부터 살아 나아가고 버티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소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삶’이라 말하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불려졌다.

굽이굽이 산자락 타고 넘나드는 수려한 메나리의 선율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넘실대는 소리의 물결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

우리의 ‘삶의 소리’였고 ‘하늘의 소리’였던 아리랑과 토속민요들이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정선 풍류’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같이 불려갈 ‘소리’를 무대에 펼쳐본다.

첫 번째 곡 - 입入 구口 작곡 : 김용하

생명의 생성과 시작을 표현한 곡.

광활한 우주 속 인간의 세계 또한 소小우주라.

고요한 듯 요동치는 정령들의 움직임과 춤사위로 ‘사이’ 즉 공간을 표현하고 힘찬 소리의 섞임과 연주는 ‘사이’에서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모든 레퍼토리 곡들의 후렴으로 이루어진 곡으로서 ‘정선풍류’의 힘찬 시작을 알린다.

두 번째 곡 - 아라리 작곡 : 조은영

아리랑의 본류인 정선아리랑의 대합창으로 삶의 시작과 공감을 표현한 곡이다.

생성되어 시작하는 모든 것들에 에너지를 불어 넣고 산자락을 굽이치듯 넘나드는 아라리의 울림은 하늘과 땅, 세상의 떨림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가슴 속 깊은 울림으로 태동하게 만든다.

세 번째 곡 - 굽이굽이(뺨목소리) 작곡 : 고만석

뺨목소리는 물길에 부딪히거나 물길을 바꿀 때

다 같이 노를 저을 때 사용하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이 또한 다 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내어 고난을 이겨나가는 소리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곡 - 하이영채(지경다지기, 목도소리) 작곡 : 김용하

시작의 설렘과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다.

땅을 다져 집을 짓고 복을 불어넣어 주는 지경 다지는 소리와 나무를 베어 협동으로 지고 가는 목도소리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리’로 재구성 하였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힘찬 소리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 할 수 있는 곡이다.

다섯 번째 곡 - 시時나워 : 다시, 소멸의 시간 (상여소리, 회다지)

같은 다른, 그리고 다른 듯 같은 하늘의 별들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혼자선 빛이 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광활한 우주 저 너머 어디선가 저마다 빛나고 있는 저 별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각자의 위치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다시 소멸한다 생生 사死의 사이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다시 존재하지 않을 우리 삶에 마지막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여섯 번째 곡 - 다시, 아라리

하늘의 소리, 삶의 소리인 ‘정선 아라리’로 다시 소리를 시작한다.

우리의 인생사를 녹여 만들어진 ‘아라리’는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도 같다.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같은 듯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서로의 공간을 채워나간다. 같이 불러보자 지금, 우리의 아라리!